제6장

한국 양명학 연구

선병삼

1. 머리말

본 내용은 2015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학술 논문 중에서 〈한국 양명학〉 관련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한국연구재단에 정식으로 수록된 논문(KCI)과 국내의 박사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15년도에 완성된 박사논문은 김미령의 『하곡 정제두의 실천적 마음공부론 연구』(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가 있다. 선별 논문의 발표 시기는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의 기간이다. 본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논문집을 연구재단 분류 방식에 따라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철학전문 등재지(후보지) 25개, 유교학 4개, 기타인문학 1개, 중국어와 문학 1개, 역사학 19개이다.

이상의 학술지를 분석한 결과 〈한국 양명학〉 에 해당되는 논문은 총12편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논문에 대한 일목요연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인물별 분류를 하였다. 인물별 분류에서는 다시 강화학파와 기타로 분류하였다.

2. 인물별 분류

1) 강화학파 관련 논문(9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박평선	하곡(霞谷)의 융합철학(融合哲學)에 관한 연구(硏究) –생리설(生理說)을 중심(中心)으로–	『유학연구』 33집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	김민재	하곡 정제두의 인성론과 교육론에 대한 일고찰	『양명학』 40호	양명학회
3	김용재 외	『霞谷集』 定本化 및 完譯과 譯註를 위한 선제적 검토	『양명학』 40호	양명학회
4	김용재	조선시대 反양명학 문헌 조사 및 추출을 통한 양명학 비판 내용의 성향 분석과 反양명학 사조의 흐름에 나타난 특징 연구 [2]	『양명학』 40호	양명학회
5	장병한	백운 심대윤의 문학과 사상 : 심대윤의 『례기정해(禮記正解)』에 대한 연구 –19세기 양명학적(陽明學的) 례학론(禮學論)의 한 특징(特徵) 파악(把握)을 中心으로–	『한국실학연구』 30집	한국실학학회
6	천병돈	경재 이건승의 민족정신	『양명학』 40호	양명학회
7	천병돈	耕齋의 양명학과 민족정신	『양명학』 41호	양명학회
8	이혜경	박은식의 양명학 해석: 다카세 다케지로와의 차이를 중심으로	『철학사상』 55집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9	김현우	박은식의 기독교 수용과 양지론	『양명학』 42호	양명학회

한국 양명학 관련 전체 12편의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을 분류하자면 이른바 강화 양명학파와 관련된 연구가 9편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이는 14년도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한국 양명학 연구에서 강화 양명학파의 위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인물 분포로 봤을 때 15년도는 정제두에 집중되지 않고 분포 양상을 보이는데, 하곡에 관한 논문 3편(「하곡(霞谷)의 융합철학(融合哲學)에 관한 연구(硏究)

– 생리설(生理說)을 중심(中心)으로 – 」,「하곡 정제두의 인성론과 교육론에 대한 일고찰」,「『霞谷集』 定本化 및 完譯과 譯註를 위한 선제적 검토」)이고, 이건승에 대한 논문이 2편(「경재 이건승의 민족정신」,「耕齋의 양명학과 민족정신」), 박은식에 관한 논문이 2편(「박은식의 양명학 해석: 다카세 다케지로와의 차이를 중심으로」,「박은식의 기독교 수용과 양지론」), 심대윤에 관한 논문이 1편(「백운 심대윤의 문학과 사상 : 심대윤의 『례기정해(禮記正解)』에 대한 연구 – 19세기 양명학적(陽明學的) 례학론(禮學論)의 한 특징(特徵) 파악(把握)을 中心으로 – 」)이다. 심대윤은 정인보가 심대윤을 두고 "근세의 학자로서 이익과 안정복은 역사학으로 빼어났고, 정약용은 정치학으로 뛰어났다. 그러나 심대윤은 적막한 가운데 외롭게 지켜, 명성이 파묻히게 되었다. …… 그러나 공정하게 논평하건대 정밀한 뜻과 빼어난 해석이 여러 학설 가운데에서 빼어났으니 삼한(三韓 · 조선) 경학의 밝은 빛이라 하겠다."라고 한 대목에서도 밝혀두었듯 경학 연구에서 독자의 경지를 구축한 학자다.

박평선은 하곡 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생리설을 주륙융합의 관점에서 검토하였고, 김민재는 작년의 연구를 이어서 교육철학의 입장에서 하곡의 인성론과 교육론을 분석하였다. 천병돈은 이건창에 대한 연구를 두 편의 논문으로 나누어 발표했는데, 이 또한 그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작업의 연속선상에서 발표된 글이다. 이혜경은 박은식의 양명학 해석을 계보학적 작업을 통해 규명하고 있으며, 이현우는 박은식과 기독교의 연결이라는 새로운 틀을 활용하여 박은식 사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2) 기타(3편)

번호	저자명	논문 제목	학술지명	발행기관명
1	김숙필	秋史 金正喜 '性靈論'의 陽明心學的 의의	『양명학』 42호	양명학회
2	이우진	이능화의 한국 양명학 연구	『양명학』 42호	양명학회
3	임종진	근대 시기 영남유학자들의 양명학에 대한 인식 태도	철학연구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김숙필의 글은 추사 예술론을 양명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성령 예술론에 견주어 그 특색을 검토한 글이다. 이우진은 조선시대 양명학에 대한 계보적 연구를 진행한 이능화 양명학 연구의 득실을 따졌다. 마지막으로 임종진은 영남 유학자들의 양명학 인식 태도를 계통적으로 살펴본다.

3. 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하곡 정제두는 조선양명학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여기에는 쟁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하곡 양명학의 특징은 무엇인가? 중국 양명학과 차별화된 그만의 양명학을 설명하기 위해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있다.

위당 정인보는 하곡 양명학의 특색을 實心實學이라고 한다. 위당은 이를 조선 양명학의 특징으로 삼고 조선의 양명학파를 세 부류로 나눈다. 첫째 부류는 양명학파라고 하기에 의심이 없는 이들로서 최명길, 장유, 최석정, 정제두, 이광신, 김택수를 꼽는다. 둘째 부류는 양명학을

비난한 말이 있지만, 속으로는 양명학을 주장했던 것을 가릴 수 없는 이들로서 이광사, 이영익, 이충익을 꼽는다. 셋째는 양명학을 일언반구도 언급한 적이 없고 받드는 것은 회암에 있으며 양명을 말하지 않았지만 평생 주장의 핵심이 되는 정신을 보면 두말할 것 없이 양명학자임을 알 수 있는 이들로서 홍대용을 꼽는다.

그런데 위당의 이와 같은 분류는 조선후기의 실학자로 평가받는 홍대용을 양명학자로 분류한 데에서 보이듯 조선 양명학의 實心實學과 조선 후기 實學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바로 이 문제를 파고든 논문이 14년도에 발표된 한정길의 「심학(心學)과 실학(實學)의 재검토: 조선양명학의 실심실학(實心實學)과 조선 후기 실학(實學) - 위당(爲堂) 정인보(鄭寅普)의 양명학관(陽明學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중심으로 - 」(『한국실학연구』 28권)이다.

15년도에 발표된 박평선의 「하곡(霞谷)의 융합철학(融合哲學)에 관한 연구(硏究) - 생리설(生理說)을 중심(中心)으로 - 」(『유학연구』 33집)는 하곡 철학의 성격과 관련한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을 다룬 논문이다. 바로 하곡 철학의 양명학적 요소와 주자학적 요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다. 박평선의 입장은 융합철학이라는 제목에서도 예상할 수 있듯이 하곡학을 주자학과 양명학을 융합한 사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이 작업을 그는 생리설을 가지고 논증하겠다고 한다. 자 그러면 그의 논리를 따라가 보자.

첫째는 주자학 수용의 측면이다. "하곡의 생리설이 갖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물리에 대한 인정에 있다. 하곡은 리를 마음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양명학과 달리 물리를 인정한다. 즉 마음 밖에 있는 사물들의 존재와 그 속에 있는 리 역시 하나의 리로 인정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리를 생리로 이해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물물의 리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면은 특히 마음의 범주에서만 사용하였던 양지의 개념을 물리의 영역까지 넓혀 줌으로써, 마음 본체가 물리의 영역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에 잘 나타난다. …… 따라서 물리에 대한 인정은 심의 영역에만 한정되어 있던 양명학의 형이상학적 틀을 사물의 범주에까지 확대시키면서, 그 의미를 주자학적 방법론에서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한 이상호의 『양명우파와 정제두의 양명학』(혜안출판사, 2008)을 인용한다.

박평선은 여기서 하곡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주자학과 같이 물리를 인정한다는 점을 부각한다.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논점을 살펴야 하는데, 첫째는 양명이 심즉리를 주장하면서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공부를 폐기했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곡의 본의를 충실히 따른 해석인가이다. 양명이 성즉리와 달리 심즉리를 주장하자 외물의 이치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이는 비판자의 안목이지 양명이 결코 외물의 이치 탐구를 무시한 것이 아님은 『전습록』을 읽어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하곡집』에서 물리는 생리와 대립적인 구도로 사용되고 있지 단독으로 물리를 논하지는 않는다. 이 두 가지를 고려한다면 박평선의 주장은 구도로는 그럴 듯하지만 각론에서는 그 지반이 튼튼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둘째는 양명학의 보완적 측면이다. "하곡은 이러한 치양지 역시 임정종욕의 폐단이 있다고 비판한다. …… 하곡은 이러한 양명학의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한 끝에 양명학의 병폐를 심과 리의 관계에 있어서 리를 물리와 생리, 그리고 진리로 나누어 봄으로써 임정종욕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다." "정감과 욕망을 포함한 생리의 인정이다. …… 하곡

은 본성이 본래 선하기 때문에 생리 또한 본래 선하다고 한다. 다만 그 본체를 읽어버리게 되면 생리 또한 본 모습을 잃어 악하게 된다고 하여 생리 속에 진리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즉 생리는 정감과 욕망을 포함하기 때문에 임정종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생리 속의 진리를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 또한 늘 잘 활용되는 주장이다. 이 주장의 가장 큰 논쟁거리는 생리와 진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다. 물론 박평선은 진리를 포함한 생리라는 개념으로 그간 생리 외의 진리 설정에 대한 비판을 누그러뜨리고는 있다. 그러나 『하곡집』 전체에서 진리의 비중과 생리의 비중을 검토한다면, 진리는 생리를 형용한 용어로 사용된 것이고 하곡 양지론의 중심은 생리 두 글자에 있다. 생리는 물리의 대척점에서 활발발한 양지를 표현하는 용어다.

양명이 심즉리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은 본심이고 살아 활동하는 심이다. 사실 현실에서 과불급의 폐단을 피할 수 없는 심을 리라고 한 이상 양명의 심즉리 테제는 늘 논리적 추궁을 당하게 된다. 그럼에도 양명학은 심즉리이지, 심즉리를 버리고 성즉리로 회군하지 않았다. 동일한 맥락에서 하곡의 생리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 점을 간과하면 하곡학의 정신을 놓칠 수 있다.

셋째는 주왕융합적 측면이다. "하곡은 생리가 곧 진리는 아니지만 진리는 곧 생리가 되고, 이러한 생리 속의 진리는 기를 벗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진리의 측면에서 보면 주자학에서 말한 본연지성과 같은 개념이며, 이기일체론의 관점에서 보면 양명학에서의 양지와 같은 개념이다. 이러한 지리와 생리의 차별성은 개념상 주자학의 성정과 비슷하다. 이는 모든 이기일체론적 구조로 설명하는 양명학적 틀에 주자학

적인 심 구조를 용합한 것이라 하겠다.”

여기서 “하곡은 생리가 곧 진리는 아니지만 진리는 곧 생리가 되고”라는 말은 하곡학의 정신을 과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양명이 심즉리를 말하기도 하고 성즉리를 말하기도 하는 대목은 심이 아니면 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곡집』의 맥락에 충실하자면 생리가 곧 진리가 된다고 해야 한다. 이 미묘한 관점의 차이가 사뭇 다른 길로 최종적인 평가를 인도하게 된다. 위당 정인보가 하곡의 종지를 실심실학이라고 했듯이 하곡이 양명에게서 찾아낸 양명학의 정수가 실심실학이며, 그의 실심실학을 지탱하는 개념이 생리 두 글자다.

근대 양명학을 논할 적에 빠트릴 수 없는 인물이 겸곡 박은식이다. 겸곡을 양명학자로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박은식 사상에서 양명학이 차지하는 위치는 부정할 수 없다. 박은식이 주자학 공부를 하다가 양명학을 받아들인 시기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김현우의 『박은식의 기독교 수용과 양지론: 영성과 양지를 중심으로』(『양명학』 42호)는 기독교와의 상관성에서 이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연구와 차별화를 보인다.

김현우는 박은식이 양명학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논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박은식은 양지론을 중심으로 대체로 1909년부터 양명학으로 전환하였다. 한편 그의 전환에는 기독교의 영향도 있었다. 이 시기는 박은식이 상경이전에 활동했던 북삼도를 중심으로 개신교계 기독교가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또 이후 그의 전적에서 기독교와 관련된 언급이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이다.” “박은식 양명학의 핵심은 양지를 중심으로 한 종교성 즉 영성이다. 이것은 중국 양계초의 격물치지 인식

론, 일본 다카세 타케지로의 격물치지 실천론과 비교되는 내용이다. 그가 양지를 강조한 것은 1900년도 중후반 북삼도를 중심으로 일어난 개신교 확장운동과 관련이 깊다. 이 사건은 일명 '성령운동'으로 불리는 당시 전 세계적 개신교 신앙운동의 연장으로, 박은식은 개인의 신앙적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양상을 심도 있게 목도하였다. 그는 개신교의 신앙이 쉬우면서도 개인의 회개와 자각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는 이를 양지라는 유교 개념으로 수용하고자 하였다. 한편 이 양지는 사변성을 거부하고 평등이하의 국민도 수용하기 쉬워야 했다. 그가 초기에 양지를 왕양명의 주장이 아닌 맹자의 논지이라고 말한 것도 바로 사변성에 대한 반감이라고 할 것이다."

기존의 입장은 박은식이 주자학에서 양명학으로의 전환하는 데에는, 당시 메이지유신의 중요한 사상적 원동력이 되었던 일본 양명학에 대한 성찰이 작동했다는 점에 주목하는데, 김현우는 이른바 평양대부흥운동으로 일컬어지는 성령운동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김현우는 주장의 근거로 『왕양명실기』를 제시한다. "1910년 발행한 『왕양명실기』에서 그는 양지를 영성적 차원으로 설명하였다. 여기서 그는 기존 '양지' 개념에 생명과 변화를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그는 현실에 올바르게 감응하는 인간상을 모색하였다. 즉 양지는 인간의 생명, 삶 및 변화의 근본적 원인으로 설명되었다. 또한 이 양지론은 기독교의 성령과도 다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양자는 모두 인간 생명의 근원이다. 또한 인간이 선악 실현의 현실적 주체라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 "박은식 양명학의 중점 역시 위 두 사상가들과 달랐다. 『왕양명실기』에서 그는 다카세와는 달리 왕양명이 용장대오를 통해 깨달을 것은 바로 '양지'라고 말하고 있다. 나아가 그는 양지를 6개의 범주로

보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삼자의 양지론을 비교해 보면, 양계초는 주로 격물치지 즉 인식론과 중화에, 다카세의 양명학은 지행합일 즉 실천론과 국가에, 그리고 박은식은 영성과 개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박은식의 양지와 성령은 동일한 것인가? 물론 아니다. 왜냐하면 박은식의 양지는 유학적 토대에서 나온 것이고 성령은 유일신을 신봉하는 기독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를 김현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박은식의 양지는 유교적 기반 하에 형성된 영성의 측면이 있다. 그러나 비록 기독교의 성령의 영향을 받았으나, 기독교의 신 즉 인격신의 개념은 부정되고 있다. 즉 리차드 도킨스의 시각처럼, 그의 양지론은 '인간은 신에 의지하지 않아도 충분히 영적인 존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박은식의 양지론은 '인간을 자기 결정권을 가진 영적이고도 주체적인 존재 '로 인식하는 철학적 근거 '로서, 한국 전통 유교와 근대전환기 전래된 기독교를 통섭하는 철학 담론으로써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김현우는 이와 같은 주장을 전개하면서 몇 가지 자신의 전제를 제시하는데, 먼저 "물론 그가 일본 양명학에 일정한 관심을 가진 것은 겸곡문고(1900)나 학규신론(1904)의 제작 시기인 1900년대 초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시기 그의 관심은 '일본이 어떻게 근대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양명학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로 양지가 주된 논점 이 아니었다. 때문에 본 고에서는 양지를 대동교 이후 개신교의 영향을 받은 개념으로써 분석할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기존 연구의 입장과 다른 맥락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주장이 타당한 지는 추후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대동교 이후 박은식의 양지는 크게 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개인적 영역과 민족적 영역에서의 그것이다. 『왕양명실기』에 나온 양지는 개인적이자 종교성이 강한 영역에 해당한다. 반면 『몽배금태조』(1911)의 심은 민족적 영역이자 국혼의 성격이 짙다. 이 두 가지 즉 개인적 영역과 민족적 영역, 종교적 영역과 현실적 영역은 이후에도 계속 발현되고 있다. 아마 이를 내성외왕이라는 유교적 공식에 대입하면, 전자는 내성이고 후자는 외왕의 영역일 것이다."라고 한다. 『왕양명실기』를 과연 개인적이자 종교성이 강한 영역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도 마찬가지로 검토가 필요하다.

논의의 연속선상에서, 이제부터는 『왕양명실기』의 내용을 분석한 이혜경의 「박은식의 양명학 해석: 다카세 다케지로와의 차이를 중심으로」(『철학사상』 55집)을 살펴보기로 하자. 잘 알려진 것처럼 박은식은 『왕양명실기』를 지을 적에 다카세 다케지로(高瀨武次郎)의 『王陽明詳傳』을 참고하였다. 그렇다면 다카세의 저작과 박은식의 『왕양명실기』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이혜경은 이렇게 정리한다. "다카세는 천황에게 충성하는 신민을 양성하는 역할을 양명학에 기대하고, 양명학의 지행합일설로부터 깊이 생각하지 않는 단순한 실천력을 끌어냈다. 그리하여 그는 애국심, 문무겸비, 事功 등을 양명학의 장점으로 평가하였다. 박은식은 다카세와 달리 근대문명과 생존경쟁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가 조명한 양명학의 장점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중심성과 자신감, 세상을 향해 펼쳐지는 인의의 마음, 온 마음으로 안 것을 온 몸으로 실천하겠다는 신실함 등이다."

이혜경의 설명처럼 다카세는 근대 양명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하는 인물이다. "'교육칙어'가 발표된 이듬해에 이노우에 데츠지로는 '교육칙어' 해설서 勅語衍義를 간행했다. 그의 해석에 의하면, 교육칙어의 주된 뜻은 "효제충신의 덕행을 닦아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 '다 함께 애국'(共同愛國)하는 의로운 마음을 배양하여 불의의 변에 대비"하는 것이었다. 그는 '다 함께 애국'도 '효제충신'와 마찬가지로 커다란 德義라고 역설했다. 즉 그는 익숙한 유가적 덕인 '효제충신'과, '애국'이라는 새로운 요구를 같은 차원에서 다뤘다. 이노우에 데츠지로는 독일에서 칸트철학을 전공하고 돌아와, 메이지 초기 일본의 서양철학사가 칸트 중심으로 서술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지만, 또 한편에서 德育 양성을 위해 양명학을 현창한다. …… 국민적 도덕심을 양성하는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양명학을 조명하는 일은 동경제국대학 漢學科를 졸업하고 이후 지나학과에서 중국철학 을 다룬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을 다카세 다케지로에 의해 본격적으로 수행된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데츠지로 양명학이 지향하는 지점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박은식의 양명학 평가' 장에서는 데츠지로와 다른 박은식의 양명학관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론을 서술한다. "박은식의 『왕양명선생실기』는 다카세의 『왕양명상전』과 형식상으로도 닮았고, 박은식 자신이 다카세의 책을 참고했음을 밝히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두 책은 핵심적인 부분에서 갈라진다. 최소한 박은식은 애국과 충군에 양명학을 가두지 않았다. 이 두 책의 차이를 보기 위해, 왕양명에 대한 소개와 양명학에 대해 서술을 검토함으로써 각각의 편집자 의도를 읽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보다 쉽고 분명하게 두 편집자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다카세의 책은 각 절 끝에 「결론」을 넣어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드러냈고, 박은식은 「안」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박은식의 「안」은 많은 경우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에서 느끼는 절실한 소회를 드러내고 있다."

이혜경은 박은식의 「안」을 분석하고 다음 몇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박은식은 양명학의 주관성을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했다. 박은식은 고정되어 있는 원칙이 아니라, 양지를 진리의 시금석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양명학이 격변의 시대에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둘째, "박은식의 특징이 드러나는 시의적절함에 대한 평가는 양명의 '事上磨鍊'에 대한 열성적 해석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 양지는 실제 일에서 갈고 닦는 것이므로 '선불교의 頓悟'와는 당연히 다르다. 그러므로 이 길은 '간이진절'하지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님도 강조된다. 양명 자신이 '오랫동안 여러 일에서 검증하고 실천하여 비로소 홀연히 양지를 깨달았다. 비록 매우 쉽고 간편하나 마음은 홀로 고통스러웠다'고 한다." 셋째, "박은식은 '근대 문명세계의 교육이 유희와 연극을 보조 수단으로 삼는 것이' 양명의 뜻에 부합한다고 감탄한다. 또 음악도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인데 고루한 인사들이 그 변화를 알지 못하고, '옛 음악이 없는 것만 탄식하면서 지금 음악의 실용을 구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한다. 인간의 감성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과 함께 변화하는 시대에 열려있는 정신, 박은식은 양명학에서 그것을 본 것이다." 넷째, "양명학의 근대적합성에 대한 박은식의 독자적 평가는 생존경쟁으로 다가온 근대문명에 대한 비판적 태도와 관련된다. …… 박은식이 양명학에서 발견한 것은 근대에 적합한 '시의적절함'뿐만이 아니었다. 근대는 이성을 가진 개인, 자연에 대한 지식을 확대해가는 개인의 존재를 발견하고 인정한 시대였다. 그러나 그 근대는 그 해방의 욕

망을 위해 개인을 전쟁터로 내몰고, 자신의 해방을 위해 타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폭력적인 것이었다. 박은식은 그 근대가 무조건의 가치가 아님을 곧 깨달았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의 마음이 최후의 가치이고 최후의 의지처임을 양명학을 통해 확인했다. '발본색원'은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전제한다. 박은식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걷든, 그 길은 다시 인간의 본원으로 돌아가, 무엇이 과연 인간으로서 가야할 길인지 고민한 결과일 것이다."

이혜경의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 김현우는 본인의 논문 각주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이혜경은 박은식의 양지론은 다카세와는 달리 '애국'이나 '충군'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분석하였다. 일변 타당한 지적이나, 좀 더 추론해 보면 다카세 『王陽明詳傳』의 핵심키워드는 良知가 아닌 知行合一이었다. 이는 다카세가 이론보다는 현실을 보다 강조한 까닭이다. 반면 박은식은 다카세보다는 인간 내면의 양상을 중시했기에 양지로부터 출발하였고, 당연히 여기에는 애국이나 충군이 빠져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박은식에게서도 양지가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발현하면 당연히 애국과 충군으로 나타나므로 그의 철학에서 애국이나 충군같은 민족주의적 요소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일한 『왕양명실기』을 독해하면서 각자의 주안점에 따라 다르게 읽힌다는 평범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혜경은 다카세의 국가주의적, 군국주의적 양명학 독해와 차별화된 박은식의 양명학관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김현우는 『왕양명실기』에서 개인적이자 종교성이 강한 양지에 주목하였다.

한국 양명학 연구를 할 적에 필독서 중의 하나가 이능화의 『朝鮮儒界之陽明學派』라는 책자다. 이능화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우진의 『이능화의 한국 양명학 연구』(『양명학』 42호)는 학계의 기대해 충분히 부응하는 좋은 논문이다.

이능화에 대한 평가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는 친일파인가, 아니면 민족주의자인가? 한편에서는 그가 일제의 조선사 편수에 참여하여 민족사를 왜곡하고 식민사학을 확립하는 선봉에 선 친일파였다고 평가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그가 조선사 편찬에 참여하면서 '발해사 의 한국사로의 편입, 건국신화 포함' 등의 활동을 근거로 일제의 한국사 왜곡을 저지하면서 한국의 역사를 올바르게 정리하고, 나아가 희귀한 사료와 전적도 손쉽게 섭렵하고자 하는 기회를 획득하여 민족정신의 계몽에 앞장선 민족주의자였다고 이해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주자학과 양명학에 대한 이능화의 입장은 어떤가? 먼저 주자학에 대한 이능화의 입장을 살펴보자. "이능화는 조선 주자학이 보여주고 있는 형식과 정신의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측면에만 비판의 날을 세운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 서민의식 부족 · 적서차별 의식 · 지나친 모화사상(慕華思想) 등을 통해서도 조선 주자학을 신랄히 비난 하였다. 그는 '근대지향적 사고 '의 바탕에서 조선 주자학을 비판한 것이었다. 특히 이능화는 사대주의 쇄국정책을 고수하도록 하여 세계의 낙오자가 되게 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도록 했던 근본 원인을 '조선의 폐쇄적인 주자학 제일주의'로 바라보았던 것이다. 그는 이것이 당쟁을 일으켰으며 사상의 자유를 속박 하고 서양의 종교나 문물을 배척케 하여, 우수한 능력을 가진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아버리게 했던 것이라 파악한다."

다음으로 양명학에 대한 이능화의 입장을 살펴보자. "이능화가 양명학을 시대변혁의 방향에 새로운 가능성을 지닌 사상으로 파악한 것

은 결코 부정할 수 없다. 양명학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은 '20세기 초 사회변동과 더불어 유교전통이 심각한 변화의 진통을 겪는 과정에서 양명학이 변혁의 방향에 새로운 가능성으로 크게 주목한 많은 지식인들의 입장'과 괘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능화의 『朝鮮儒界之陽明學派』의 특징을 몇 가지 나열하면, "먼저 이능화는 南彦經을 조선 최초의 양명학자라고 주장하였다. 정인보가 최명길과 장유를 조선 최초의 양명학자로 보는데 비해, 이능화는 서경덕의 문인인 '남언경 '을 '조선 최초의 양명학자 '로 들고 있었다. 특히 이러한 이능화의 '설 (說)=개념 설정 '은 현재까지 양명학 연구에서 거의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이능화는 한국의 양명학 전래시기를 1567년 전후 즉 明宗末에서 宣祖初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능화의 견해는 이후 다카하시 도오루(高橋亨)와 유명종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점은 이 저작이 후대의 연구에 주용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정인보의 『양명학연론』과 마찬가지로, 이능화의 『조선유계지양명학파』 에 나타난 양명학 연구 시각이나 자료 수집의 폭은 이후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곧 이능화가 구축한 '한국 양명학 연구 '는 다카하시 도오루 (高橋亨)를 비롯하여 윤남한, 유명종 등과 같은 해방 이후의 한국 양명학 연구자들의 토대로서 작동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능화의 본 저작은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가? "이는 『조선유계지양명학파』에서 조선 주자학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표현되는 '事大主義'와 '黨爭'이라는 두 용어에서 그 면모를 확인 할 수 있다. '사대주의'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볼 때 독립적 · 자율적이기보다

는 큰 나라에 붙어 생존을 유지해왔다고 하는 식민사학자들의 왜곡된 용어이다. 결국 언제나 의존적인 우리 민족을 일제가 식민지배하는 것을 올바른 것이라고 정당화하는 입장인 것이다. 그리고 '당쟁'은 조선의 붕당간의 대립을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왜곡하고 과장한 말로서, 우리 민족의 성향이 본래 분열성이 강하여 자기네들의 목적을 위해 파벌을 만들어 정쟁하다 결국 조선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선유계지양명학파』는 이러한 '사대주의'와 '당쟁'이 그 구조적 뼈대를 이루고 있다. …… 이능화는 한국 양명학을 정리함에 있어서, 식민사학에서 주로 이용하는 정치적 대결의 틀로서 정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논문은 김숙필의 『秋史 金正喜 '性靈論'의 陽明心學的 의의』(『양명학』 42호)이다. 양명학은 주자학에 비하여 주체와 정감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측면은 명대의 이른바 문예론인 성령론으로 전개되었는데, 이숙필은 성령론을 가지고 추사의 예술세계를 조망하면서 양명심학과 추사를 연결시킨다. 바로 이 점에 본 논문의 특색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숙필은 "추사의 미학사상은 밖으로는 주자학과 안으로의 양명학이 합일을 이루는 외주내왕적 합일이라는 논리가 도출된다."고 한다. 이런 주장이 학계의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거가 제시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겠지만, 추사의 예술정신을 양명학과 연결시키는 본 논문의 시도는 연구 영역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4. 평가와 전망주요 논문 분석 및 비평

15년도에 발표된 12편이라는 편수는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지 않은 편수이고, 그 중 눈에 띄는 몇 편은 주제가 참신하고 학계의 수요에 일정 정도 부응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수작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사실 1년 동안 중요 학술지에 게재된 한국양명학 연구 논문 편수가 12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은 조선유학사에서 차지하는 양명학의 비중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논문들이 다루고 있는 연구 대상이 소위 강화양명학파에 집중된 것에서도 여실히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조선양명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시 새로운 양명학자의 발굴과 주제들을 탐색하여 논의의 장을 확대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가장 큰 걸림돌인 문헌의 제약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가령 조선시대 유학자 중에 양명학적 특색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전체 사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자면 양명학자로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든지, 양명학적 색채가 농후하지만 문헌이 실전되어 본격적인 연구가 불가능한 경우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요 논문 비평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김용재의 「조선시대 反양명학 문헌 조사 및 추출을 통한 양명학 비판 내용의 성향 분석과 反양명학 사조의 흐름에 나타난 특징 연구[2]」(『양명학』 40호)와 같은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